# 나주시, 리얼배빵 디저트 개발교육 전수자 배출

### 제작 기술 전수 개인별 실습
### 창업자, 카페 운영자 등 수료
### 지역 농특산물 소득증대 기대

나주시가 시행한 '나주 리얼배빵' 디저트 개발 교육에 카페 운영자, 창업예정자 등 19명이 배출됐다. 지역 특산물 배를 활용한 신메뉴 제작 기술 습득으로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보탬이될것으로 기대 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주시는 지난 3월27일부터 농업기술센터 가공실습실에서 '지역농산물 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교육'을 10회에 걸쳐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수강생 중 19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전수와 다양한 실습, 디저트 전시회,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이 진행돼 교육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디저트 전시회에서는 '나주 리얼배빵, 흑미쌀 배잼 식빵, 시금치 소금빵' 등을 선보였다.

교육생 가운데서는 직접 가공한 배잼, 배말랭이를 이용한 꽈배기, 깜빠뉴, 배크럼블 등 보다 개선된 상품을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 리얼배빵 디저트 개발 교육에 카페운영자 등 19명이 수료했다. 나주시 제공

### 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
### 나주시, 마약류 감시 강화

나주시가 대표적인 마약류인 양귀비 수확기를 맞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나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 밀경(불법 재배)을 집중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

집중 단속에는 나주시보건소 마약류감시원 3명과 경찰 4명이 참여했다.

단속반은 산포면과 공산면 일대를 돌며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 4곳에서 양귀비 54주를 압수했다.

양귀비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방침이다.

마약류 취급 기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나주시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동물병원 포함), 약국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식약처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과 실재고량을 일일이 비교·확인하며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반출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 발달장애 청소년 치유 캠프
### 국립장성숲체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장성숲체원은 광주시 소재 광산구청소년수련관과 함께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캠프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2023년 운영한 '발달장애 청소년 숲놀이단' 회기형 캠프의 연장선상으로, 숲체원은 복권기금(녹색자금)을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련관 측은 교통편과 식비를 지원하여 운영됐다.

국립장성치유의숲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숲과의 교감을 위해 무뎌진 오감을 회복시켜 주는 '숲 테라피' △호흡을 가다듬고 편백숲을 감상하며 풍욕을 통해 심신을 회복시키는 '해먹 쉼 명상'으로 구성됐다.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국내 최대 편백숲인 축령산에서 치유 인자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지역 신규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펼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 전남도농업기술원, 신규 스마트팜 도입 농가 사전 컨설팅

### 13개 시군 40개 농가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이 전남지역 신규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범농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올해 스마트팜 신규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전남 13개 시군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도와 향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기초 작동원리 교육을 비롯해 농가 맞춤형 제어 항목 설정 방법과 센서 설치 및 작동·점검법 등이다.

사전컨설팅에 적용되는 전남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해 도내 3개 업체에 기술이전 됐으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금까지 79ha 260여 농가에 보급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49개 농가에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치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비용 절감뿐 아니라 활용 능력 향상으로 스마트팜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컨설팅은 전남농업기술원과 13개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업사업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 농가를 직접 방문해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061-330-2552)로 문의하면 된다.

윤가윤 연구사는 "이번 사전컨설팅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스마트팜 기술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내에 스마트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함평 국화분재 재배기술 대중화
### 울진군 야생화연구회원 방문

함평군이 앞선 국화분재 재배기술의 대중화와 전국적 확산 선도에 나섰다.

13일 함평군은 울진군 야생화연구회원 등 21명이 지난 10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국화 작품전시를 위한 시기별 재배관리 기술 및 소재를 활용한 국화분재 재배방법 전수 등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함평군의 국화분재 재배기술 교류를 통한 대중화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화 분재 작품이 매해 전시되는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지난해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과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그 진가를 인정받은바 있다.

한편 함평군은 국화 등록품종 23종과 육종계통 240종을 관리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을 통한 아름다운 국화분재와 다양한 국화조형물 연출로 전국적 역량의 국화 분재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담양군 '제18회 물과 건강 포럼'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등
### 맑은 물 공급 노력 인정받아

담양군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세종관 50주년 기념홀에서 열린 '제18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담양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관로의 단면 확대를 통한 출수 불량 해소, 재염소 투입 설비 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 등을 통한 상수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노후화된 신계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군이 '제18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담양군 제공

### 진드기 증가 '물림 주의'
### 화순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은 13일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질병관리청의 예측에 따라 진드기 물림 주의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적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 이내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물렸을 경우 치명률이 높고 아직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텃밭 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물 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크다. 주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설사 등 감기·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빠른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바로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에서 돗자리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털고 씻고 세탁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